

불자들이 가슴마다 연꽃 '활짝'

자비연꽃 배지 12만개 배포...재난구호·소외계층에 성금 전달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할 12만송이 자비연꽃이 피었다. 조계종과 본사가 공동으로 4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35일간 배포한 자비연꽃 배지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자들의 자비나눔 실천을 통한 자긍심 고취에 한 몫했다. 또 불교계 기부문화 확산 및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부처님 오신 의미를 되새기며 사회적으로 화합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자비연꽃 배지달기 캠페인은 12만명의 불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배지달기 운동을 통한 자비나눔 방식은 불자들의 높은 관심을 불러 일으켜 단기간에 벌어진 불교계의 성공적인 이벤트로 기록됐다.

연꽃 배지는 4월 20일 열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법회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태고·천태종 등 각 종단 스님들과 사찰의 참여가 눈길을 끌었다. 또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5월 12일 방문한 이라크 아르빌 자이툰부대 평화사법대에서 미군장병을 비롯한 한국군들에게 자비연꽃을 직접 달아주며 안부를 기원하기도 했다.

안양 한마음선원의 해외지원들도 연꽃배지를 신중해 현지인 불자들에게 배포했으며, 신한생명 이임숙 생활실계사는 자신의 고객들에게 자비연꽃 배지를 배포해 화제가 됐다.

단체의 참여도 두드러졌다. 고창에서 불교공부반을 운영하는 임사빈씨가 회원들과 20개를 신중했다가 하면 다



본사 서정만 이사가 5월 25일 조계종 사회부장 정법 스님에게 자비연꽃배지 성금 380만원을 기탁했다.

음카페 한지하우스모임도 한지체험행사를 통해 마련한 성금을 연꽃배지 성금으로 기탁했다.

본사는 5월 7일 범어사에서 열린 설선법회 화합식에서 10회 동참한 법회참가자 3000여명에게 배지를 보급했다. 한편 모아진 자비나눔기금은 국내외 재난구호 및 결식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외국인노동자 등 극빈 소외 계층에게 전달된다. 또 6월경 기금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사업(단체)에 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나눔단체-릴레이 탐방

진각종 실상심인당 '한소쿠리 가게' 보살들

“사랑 한소쿠리 담으세요”

“가게가 만물상이죠? 우리 가게 물건들은 모두 기증받은 것이고요. 잘 보면 새것도 있어요. 수익금으로는 독거어르신들 보일러 수리도 하고 아이들 장학금도 조금씩 주고 있지요.”

진각종 구로지부 실상심인당이 4월에 개점한 재활용 가게 ‘한소쿠리’. 하루에 두 명씩 교대로 가게를 지키는 실상심인당 보살들은 항상 찾아오는 손님에게 물건의 출처와 수익금 사용에 대한 설명을 빠뜨리지 않는다. 5월 25일에 찾아온 손님은 박영순 보살(63)이 맞았다.

물품은 100원짜리 머리 고무줄부터 사랑 산나물 팔찌 목걸이까지 다양하다. 짬뽕도 깔끔하게 엮은 가방은 중고인 탓에 손때가 조금 묻었다. 그래도 500원이라는 찬 가격에 손님은 놀라고 만다. 좋은 일 하는 가게, 찬 값에 물건을 살 수 있는 가게에 손님이기도 하다. “나도 물건을 기증하겠다”는 반응을 보내온다.

실상심인당이 지역사회에 다가가기 위해 ‘한소쿠리’가 만들어졌을 때 보살들은 걱정보다 의욕이 더 많았다

고 한다. 그러다보니 잊지 않는 한복, 어디선가 선물 받은 그릇 등 자신의 살림을 내 놓아도 아깝지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매상이 오르지 않는 날은 자신의 주머니를 털기도 하는 보살들이 얼마 전에는 진각복지재단의 상징인 파란 조끼를 입고 직접 거리에 나가 약품, 생필품 등을 기업체로부터 후원받기로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실상심인당 보살들의 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구로구청에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들이를 하거나 식사를 제공할 때 출동하는 사람들도 실상심인당 보살들이다.

“내가 이렇게 일하고 앉아있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소중한 일이지요.”

실상심인당 사무국장 문화주 보살의 말에서 묻어나는 어려운 이웃, 그리고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실상심인당 보살들의 넉넉한 인심이 ‘한소쿠리’의 원동력이다.

김강진 기자



기증받은 물건을 팔고 나누고 다시 물건을 받고, 진각종 실상심인당 '한소쿠리'에서는 나눔의 순환이 실제없이 이뤄지고 있다.

■ 옷·신발·책 이웃과 나누세요

‘한소쿠리’는 철저하게 후원물품으로 채워지는 가게다. 지금 인기 품목은 의류와 악세사리. 신발도 내어놓기 무섭게 팔려나간다. 현재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미고 있는 사

랑방을 도서 후원도 필요한 상황이다. 실상심인당 정진심 전수는 “우리 가게는 이웃간의 관심으로 이끌어가는 곳”이라며 불자들의 후원 동참을 호소했다. (02)862-3624

자비연꽃 배지 신청자 명단(신청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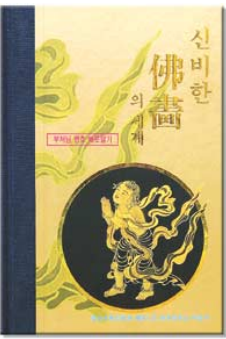
- ▲4월 14일 총무원장 법장스님 및 교구본사 주지회의 동참 스님
- ▲4월 16일 사회복지재단 주관 난치병 어린이 돌기 1배 100원 3000배 정진기도 동참 대중, 연등축제 참가단체 실무자회의 동참대중
- ▲4월 18일 선본사 정목스님, 진관사 진관스님
- ▲4월 19일 고관사 제량스님, 법해사 경보스님, 원명사 돈각스님, 죽장사 영호스님, 선재사 원인스님, 불광사 법정스님, 고운사 혜승스님, 봉림사 응산스님
- ▲4월 20일 종단추진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법회' 노무현 대통령 내외 및 참석 대중, 운운사 흥륜스님, 장안사 정연스님, 의룡정사 정연스님, 광덕사 효진스님, 한산사 해초스님, 정혜원 혜중스님, 성관사 이정희, 효림정사 흥조스님, 금룡사 혜선스님, 동명사 지명스님, 인천불교회관 일지스님, 용선사 법일스님, 봉곡사 윤성스님, 정령사 무정스님, 반야선원 수현스님, 대광사 윤성스님
- ▲4월 19일~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특별홍보기간 동참한 중앙종무기관 종무원
- ▲4월 21일 부산북면의 집, 해인정사 광후스님, 종회의원 윤달스님, 해운사 덕산스님, 천후사 이견스님, 성주사 원정스님, 국립서물병원 김주호, 직지사 성운스님, 악수사 원문스님, 황룡사(염불종) 황정륜스님, 청암사 승가대학, 전법사 철은스님, 동명사 보은스님, 백담사 일문스님, 해인정사 주지스님, 정원사 지각스님, 송원사 회연스님, 용화사 영진스님, 민월사 이신수, 대덕사 현묘스님, 문수사 선진스님, 금수사 주지스님, 소원사 운봉스님, 성불암 상운스님, 동해사 무진스님, 표충사 청운스님, 봉선사 철안스님, 백운사 법안스님, 봉림사 성무스님, 은적사 하운스님, 내성사 출운스님, 대한불교조계

- 종북지재단
- ▲4월 22일 사찰일점등식 및 연등음악회 동참 대중, 운봉원 일동, 도림사, 원중스님, 계곡사 자항스님, 수타사 삼지스님, 기보사 행훈스님, 영덕사 선봉스님, 석남사 정혜스님, 불광사 사요스님, 보현사 동운스님, 용화사 현각스님, 자광사 보연스님, 용화사 선래스님, 월라사 도중스님, 양산포교당 지수스님
- ▲4월 25일 성현사 보경스님, 연화사 보성스님, 수다사 지명스님, 무량사, 진관사 진관스님
- ▲4월 26일 '자비나눔을 위한 친척명성 음악회' 동참대중, 생명나눔실천본부, 현호사(염불종) 학륜스님, 칠보사, 도리사 법등스님, 강천사, 일로에 마이 채정희, 도림사 원중스님, 개운사 중범스님, 백운사 법정스님, 보문사 법경스님, 운운사 흥륜스님, 대흥사 공산스님, 동명사 지명스님
- ▲4월 27일 신홍사 청소년 수련원 성일스님, 금지암 도진스님, 은해사 법타스님, 자재암 법해스님, 원광사 오운스님, 사나사 화안스님, 평정암 정법스님, 낙산사 정년스님, 조계사 원달스님, 내원사 현중스님, 신흥암 범수스님, 비룡사 법광스님
- ▲4월 28일 사리암, 현대불교신문사, 중앙산도회, 정혜사 호운스님, 악사사 태연스님, 통도사 현문스님, 성주사, 정취암 수원스님, 민월사 원산스님
- ▲4월29일 조계종 여성개발원, 미타사 용운암, 굴불사, 불교방송, 한마음선원 혜원스님, 서원사 운봉스님, 은적사 삼각스님, 칠보사 정광스님, 정혜원 혜중스님, 마산 봉서사 진옥스님
- ▲5월 1일 보문사 법경스님, 삼덕사 도통스님, 한마음선원 대중일동
- ▲5월 2일 신홍사 성일스님, 국기원 보현스님, 송학사 명선스님, 대덕사 현묘스님, 관음사 지우스님

- 남, 내원사 현중스님, 방곡사 묘허스님, 송계사 정우스님, 용화사 선곡스님, 청량사 지현스님, 대둔사 성욱스님, 여주 보문사 성정스님, 심원사 상운스님, 생명나눔 실천본부, 부산불교신도회, 봉림사 성무스님
- ▲5월 3일 대원정사 정행원스님, 동학사 요령스님, 법장사 주지스님, 월정사 정법스님, 청룡사 정완스님, 조양사 주지스님, 운봉원, 조계사 해타스님, 생명나눔 실천본부, 연미사 지일스님, 직지사 자광스님, 영월사 정목스님
- ▲5월 4일 봉은사 원혜스님, 불지연 일현스님, 부천 9공주여단 박원동 여단장, 서산지역사암연합회 서광사 도진스님, 청령사 원상스님, 대원사 지명스님, 대안 용주사 정각스님, 마곡사 진각스님, 동화사 지성스님, 생계사 원정스님, 금산사 평상스님, 화엄사 중상스님, 봉선사 철안스님, 해운사 덕산스님, 보광사 무진스님, 백석열사 윤석길씨, 청안사 청현스님, 석림사 성공스님
- ▲5월 6일 미륵정사 만성스님, 황룡사 호정스님, 조계사 원달스님, 영전사 혜승스님, 만연사 정과스님, 풍경소리 대구경북지부, 경기도 광주 불국사 주지스님, 통영 용화사 선곡스님, 현대불교신문사, 낙산사 정년스님, 금강사 본각스님, 평정암 정법스님, 여주 백화사 계성스님, 소원사 운봉스님, 흥국사 대오스님, 만초스님, 도선사 해자스님, 화계사 신원스님, 보덕사 대웅스님, 서원사 주지스님, 영천포교당 지산스님, 공무원불자 연합회 일동
- ▲5월 7일 청강사 행주스님, 봉선사 혜강스님
- ▲5월 8일 조계사 외국인 안내소
- ▲5월 9일 수련 양위석씨, 소비자보호원 범우회 김중관씨, 신계사 제정스님, 한국경동전차 장태관씨, 대구 관음사 지우스님, 상주 용화사 공국스님, 해인사 길상암 포교원 광해스님, 동선사 정원스님, 송학사 명선스님, 민원사 부연스님, 관음사 원경스님, 도선사 해자스님, 소원사 운봉스님,

- 삼불사 동원스님, 한마음선원 혜원스님, 마산 봉서사 진옥스님, 오현초님, 도리사 법등스님, 귀신사 무여스님, 성남 반야정사 안중애 법사님, 비룡산 죽사 단호스님, 원각사 명선스님, 예천 한천사 향영스님, 세사사 진일스님, 불로사 현우스님, 마산 오인석씨
- ▲5월 10일 고운사 혜승스님, 명법사 승흥스님, 보현사 석원스님, 금산사 법안스님, 용인 유상목씨, 생계사 원정스님, 자이툰부대 장병일동, 관음사 윤호스님, 복천사 경호스님, 악사사 태연스님, 원각사 중조스님, 원광사 오운스님, 안국선원 수불스님, 불승정사 도일스님, 보림사 하근스님, 조계사 원달스님
- ▲5월 11일 지장포교원 현오스님, 봉은사 원혜스님, 청량사 정호스님, 대웅화사 혜산스님, 대원사 도성스님, 지상사 오철스님, 백운사 법안스님, 공무원불자 연합회, 신한생명 이임숙씨
- ▲5월 12일 자비사 법성스님, 불학연구소 철우스님, 석수암 무척스님, 평불협 법타스님, 대덕사 현묘스님, 직지사 자광스님, 도원사 주지스님, 조계사 신도회, 사사실장 심경스님
- ▲5월 13일 중로경찰사, 우리절 대원스님, 불교상담개발원 정덕스님, 팔정사 진우스님, 청안사 청현스님, 조계사 원달스님, 백운암 미산스님, 대전 이광현씨, 법계사 무관스님, 법성사 법운스님
- ▲5월 17일 법해사 나경보스님, 불지연 일현스님, 굴불사 회안스님, 삼불사 주지스님
- ▲5월 18일 부산 오승난님, 정방사 석구스님, 운수사 과진스님, 다음카페 한지하우스 회원일동, 조왕사 도은스님, 부산 지월스님
- ▲5월 19일 고관사 제량스님, 조계사 반야회
- ▲5월 23일 관악사 진옥스님, 법성사 법운스님, 승가사 도감스님
- ▲5월 24일 능인정사 포교원 법경스님, 고창 임사빈씨

탱화의 미적가치에서 각각의 의미까지 전달 신비한 불화의 세계



사람에서 만나는 많은 종류의 탱화들, 그 안에는 다양한 불보살들이 각기 다른 형상으로 표현돼 있지만, 그 명호들을 제대로 부를 수 있는 불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신비한 불화의 세계>는 부처님을 주존(主尊)으로 하는 상단탱화, 보살을 중심으로 그린 중단탱화, 신종과 천왕 등을 형상화한 하단 탱화 등을 간단한 설명과 함께 종류별로 선보여 우리를 불화의 세계로 한걸음 다가서게 합니다. 소개되는 불화들은 박정자씨가 직접 제작한 것으로, 명작의 붓끝으로 살아난 부처님 형상의 장엄미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 박정자 지음 / 광진문화사 / 3만원 / 양장본을 권라 / 신국판

부처님을 진경하는 사불(高佛) 수행

한국 최초 사불 교본 출간!! 붓끝 하나하나에 환희심을 담은 사불수행!! 이제 내안의 부처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 사불 교본 1, 2, 3, 4 (책크기 : 4절 395 × 545mm)
- 1권 - 탱화전문가에게 꼭 필요한 상단, 중단, 하단, 독존도의 탱화초와 부모은중경, 팔상도, 비현상초를 그리고 채색할 수 있다.
- 2권 - 관음 32응신도와 42수관음, 현수현안관음의 출현, 53불을 매일 그리고 채색하여 예복할 수 있다.
- 3권 - 만다라와를 그리고 채색하여 초파일 연등에 붙이거나 발마당이나 가정에서 실에 꿰어 부처님을 장엄할 수 있다.
- 4권 - 삼신불, 팔대보살, 시왕님을 그려보고 채색할 수 있다. 사찰에서는 지장제일에는 지장보살을, 관음제일에는 관세음보살을, 약사제일에는 약사여래를 그려 부처님 복정에 넣어 모시거나 법당 부처님 좌복에 모시고 기도하여 신심을 높일 수 있다.



주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후보 박정자

사불수행이란?

조금은 생소한 수행법이지만 이미 고려시대부터 사경과 함께 널리 행하여 그 찬란한 빛을 발했으나 역 불정척의 과정에서 맥이 끊어지고 지금은 사경활동만 발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불수행은 사경보다 쉬워 남녀노소가 누구든지 쉽게 따라할 수 있고 마음속의 부처님을 눈으로 확인하며 신심을 다져 가기 때문에 불자들의 신심을 마음 깊이 각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안의 부처와 하나가 되는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불이라는 또 다른 수행으로 삼천리 방방곡곡 우리들의 절마당에서 모든 불자들이 천백억화신의 부처님을 사불하여 금수강산을 불국정토로 이루고자 발원하나다.

나무마하반야바라밀 만하 박정자 합장

주문전화 061)333-4472 (은행계좌에 입금 후 전화하시면 택배로 배달)
국민은행 073-01-0289-484 / 농협 637015-52-036279 예금주 박정자